

캄보디아 선교행전 54

정용희 김정숙 선교사 정기 기도서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시 13:3)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자님께 선교행전으로 만나게 됨이 늘 기쁨이 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동역자님들 되시길 기도하며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행사를 협력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예배당이 꽉찼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신 싱글 선교사님께서 힘드신 중에도 풍성한 성탄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시켰고, 특히 유치원 교사로 헌신한 짜리야가 장식과 많은 시간 학생들을 연습시켜줘서, 찬양과 율동 드라마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후 수고해 준 교사들과 3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대청소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교인들이 모두 구역을 정해서 털고, 쓸고, 닦고 정리하며 애써 주었습니다. 그동안 묵었던 먼지와 때가 모두 씻겨나가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던지~ 힘써준 모든 교인들과 시원한 수박파티도 했습니다.

송구영신예배와 새해 첫날 성경통독 모임



밤 8시부터 시작된 송구영신 예배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티어라의 동생과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놀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에 있는 성경통독 시간에도 잠시? 참석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후 말씀카드도 나누고,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지난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해를 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이어서 교사들과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정독했습니다. 친구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년예배



2024년 첫 주일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지난해에 대한 감사와 새해의 다짐과 계획을 함께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표와 계획 세우기를 명확히 해서 각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예배

1월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이 많을 때인데도 7명의 성도들이 등교 전에 꾸준히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폭 깊이 높이가 장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주일예배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무속신앙과 다신숭배 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올해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안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중보해 주세요. 지난 구정설날때는 학생들과 함께 토요일에 모여서 윗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1부와 2부예배 후에는 설교말씀에 기초한 분반성경공부로 신앙을 다지고 있고, 소요리문답과 감정 읽기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활절 준비로 교회에서 찬양과 율동 성극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

풍성한 달란트 잔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은 달란트로 한아름 선물을 안고가는 친구들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한 후원자님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서 아기옷을 모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에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큰 선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동역자님의 가정이나 교회에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 학용품, 수건, 옷가지 등을 보내주시면 친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공부와 율동반, 제자반

지난해부터 진행되던 가정교회 모임들과 성경모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들도 성경공부반과 율동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9명의 제자반 친구들이 끝까지 잘 훈련되도록 기도 해 주세요. 요즘은 제자반 친구들이 예배후 성경공부 인도후, 부활절 율동, 성극 연습도 시키고, 일부는 세레에안다엣에서 예배를 섬겨주고, 그 곳 친구들 부활절 행사 준비도 돕고 있습니다.



세레이안다엣 교회

지난 1월에 드러빠양축 마을에서 주일예배를 새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되어 집에서 가족모임을 자주 가진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예배드렸던 영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옆 마을인 세레이안다엣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집과 다른 곳으로 동네분이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받은 집 주인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고, 그 집 주인의 동생과 딸이 저희 교회 성도들과 친구지간이었습니다.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변 동네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집주인과 식구들이 먼저 좋은 일군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발적으로 도와 주는 친구들로인해 감사합니다.



둘로스 호프 선교선 방문



저희 오엠소속의 둘로스 호프 선교선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교회 교사들과 함께 아웃팅을 다녀왔습니다. 찐 형제가 새벽 4시에 프놈펜에서 출발하여 6시에 교사들을 태우고 10시에 시하눅에 와 주었습니다.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선교선을 구경하고 외국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도전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교선도 타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봅니다.

멋진 친구와 30년만의 재회



32년전에 둘로스 선교선에서 2년동안 룸메이트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친구가 가족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었습니다. 옛날엔 싱글이었는데, 장성한 자녀와 아내를 둔 가정으로 만나니 감개무량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친구를 만나니 그것들이 큰 축복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와 준 친구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침 둘로스호프 선교선이 캄보디아에 와 있어서 함께 선교선을 방문하며 옛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캄보디아로 선교오고 싶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 축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원

8명의 원아들이 등록을 해서 선교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원아 가 모집되고 부모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구의교회 단기팀

지난 4일부터 저의 모교회인 구의교회 장년선교팀이 방문해주셨습니다. 건축과 전기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은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께서 센타 내의 모든 침수지역에 배수로를 설치해 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수작업과 모든 건물의 조명설치와 소소한 전기문제등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두 연로하시고 오히려 쉬셔야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를 견디시며 온 힘을 다 해 힘든일도 가리지 않고 세심하게 정성껏 섬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덕분에 맛있는 도넛 만드는 체험학습도 처음으로 경험해 보고 맛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권사님손맛은 꿀맛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오셔서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하며 내년도 뵙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 앞에 폭 40미터의 도로가 생긴답니다!

교회 설립 12년만에 주정부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등기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교회 앞의 좁은 길이 40미터의 큰 도로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100번이 저희 센터인데 빨간선부터 노란색까지의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쪽에 가까운 유치원건물과 얼마전

새로 지은 소예배당 건물은 완전 철거, 예배당과 저희 사택 또한 일부 철거를 해야 할 아찔한 상황입니다. 보통 보상도 없고 철거도 본인이 해야 한답니다. 귀한 헌물이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해주세요..

사남매 이야기



하은: '엄마, 우리는 가족이야!' 회사 식구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은인 대표님 생신과 가족들도 챙깁니다. 대표님은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일이 없고 본인 회사도 다음달 일이 없다며 기도제목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일이 넘쳐난답니다. 하은이가 디자인한 걸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하은이 이사때 가족처럼 꼼꼼히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리모델링한 따뜻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영: 정부에서 급증하는 이민자 컨트롤을 위해 영주권심사를 1년째 중단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영주권이 안 나오면 일을 못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받고 기도 중입니다.. 어느 날 집에 2시간이나 늦게 돌아와서 물어보니, 업무를 넘겨주고 오면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가



불편할까봐 변을 치워주는 등 굵은 일(제생각)을 다하고와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들에게 칭찬도 자주 듣고, 간호조무사처럼 일하는 분은 "너는 내가 아는 간호사 중에 최고의 간호사라고 뽑는 사람 중에 하나야"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연주회에서 사회와 유초등부 워십 가르치기, 한글학교, 찬양팀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명이었던 청년부는 5명이 되었다며 무척 기뻐합니다. 요즘은 '어떻게하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변 친구들을 초대하여 음식으로 섬기는 일도 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사람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있는데, 좋은 배우자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재하: 저는 현재 3학년 2학기를 달리며 취업과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맞는 일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학기 학교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에만 있으면서 탈진 상태가 왔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 곁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주셔서 버틸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내내 '난 같은 학년에 같은 나이 한국 친구가 한 명도 없어'라고 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학비는 텅텅 털어도 부족했는데 감사하게 재하,재영이가 보태서 딱 맞았습니다. 학업도 벽찬데 장남으로서 학비 벌려고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나봅니다. 그래도 올 A 를 맞았다며 좋아라 합니다. 장학금도 일부 채워져서 감사하구요. 학교에서는 친구들 머리도 깎아주는 봉사도 하고있다고 합니다. 재하 재영이와 같은 방 쓰고 있는 친구의 아버지이신 선교사님은 재하 재영이가 당신의 아들을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십니다.

재영: 컴퓨터과학과로 전공을 바꿨는데 졸음을 잘 이기고 열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게 뭐니?'하고 물어보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크리스천스쿨이라 예배가 많고 학업량도 지나치게? 많은데, 한인교회에 목요일예배가 생겼다며 목요일예배도 갑니다. 주일에 학교예배후 한인교회가서 드림으로 봉사합니다. 목요일에 드림 봉사하는 친구가 힘들까봐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재영이가 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많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 1) 교회 건물이 계속 유지되기를 간구합니다.
- 2) 부활절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교인들의 삶에 참된 신앙이 자리잡게 하소서
- 3) 진행중인 소그룹성경공부반이 부흥할 수 있도록
- 4) 씨레이언다엣 마을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참석중인 마을사람들이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특히 집을 제공하고 있는 위볼 자매가 믿음이 성장하여 일군으로 세움받게 하소서
- 5) 유치원 원아 30명이 채워지게 하소서
- 6) 4월에 있을 주품에 교회 단기팀 사역을 위해서
- 7) 아내의 이명, 천식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저의 인플란트 수술을 위한 시간과 물질의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 8) 하은이 이사 잘 하게 해 주심 감사. 아들들 학비 일부 채워주심에 감사.
- 8) 둘째 하영이가 6월 전까지 영주권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두 아들을 위한 학업과 학비를 위해

후원계좌 : 440290-29-001311 국민은행 정용희 (연말정산/소득공제)

045-24-0383-941 국민은행 정용희 (장학금 후원)

연락처 : +855-77-995-337